

프로야구는 U+로 봅니다  
 아따- 인능 U+ 프야구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ONE스토어 / Play스토어 / App Store ▶ U+ 프야구 검색



# ‘스피드 UP’ 이민우 KIA 불펜 필승조 뜬다



변화구 위력 더하며 두산전 1.2이닝 피안타 없이 탈삼진 5개  
 “오디션은 계속된다... 경쟁력 있는 투수란 걸 보여주겠다”

스피드 찾은 이민우(사진)가 KIA 불펜의 새 전력으로 뜬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1일 임기영의 복귀와 함께 선발진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시즌 첫 원투승을 거둔 에이스 양현종을 필두로 헥터와 팻틴 두 외국인 선수로 1-3선발을 채웠고, 고민 많던 4-5선발 자리에는 임기영과 함께 한승혁의 이름을 넣었다. 이에 따라 선발로 출발을 했던 이민우는 불펜에서 필승조를 노리게 됐다. 새 도전에 나선 이민우의 최근 움직임은 좋다. 지난 주말 두산 원정에서 두 차례 불펜 투수로 나온 이민우는 1.2이닝 동안 피안타 하나 없이 탈삼진 5개를 뽑아내며 눈길을 끌었다. 선발로 나온 두 경기에서 6이닝 4실점, 1이닝 6실점을 하며 연달아 패전투수가 됐던 이민우는 지난 11일 한화 원정에서도 정용운에 이어 마운드에 올랐다가 피홈런 두 개를 허용하는 등 3.1이닝 4실점을 하며 또다시 패배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두산전 등판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엔트리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는 21일에도 아웃카운트 5개 중 4개를 삼진으로 만들어냈다. 이민우의 변화에는 스피드가 있다. 경성대 재학시절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렸던 이민우는 KIA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재활의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지난해 군 복무까지 마치고 마운드로 돌아왔지만 예전의 스피드가 나오지 않았다. 배장 있는 승부로 지난해 9월 14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서 역대 25번째 프 로 데뷔전 선발승 주인공이 되기는 했지만 스피드는 아쉬움이 있었다. 올 시즌에는 개막 엔트리에 합류, 선발로 시작은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이민우는 140km 초반을 맴 돌던 직구 스피드를 147km까지 끌어올리면서 변화를 예고했다. 스피드와 힘으로 승부를 하게 되면서 변화구의 위력은 더해졌다. 이민우는 “공을 때리는 게 좋아졌다. 대학 시절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던져보고, 몸을 조금 바꿨다. 스피드가 나오니까 직구로 빠르게 승부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코치님들도 불블러지 말고 자신 있게 승부를

하고 내려오라고 하신다. 후회 없이 던지자는 생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는 최근 서재용 코치와 함께 ‘피니쉬 동작’에 공을 들여왔다. 서재용 코치는 “공을 던질 때 팔 동작이 좋지 못했다. 피니쉬 동작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공 하나하나 전력 피칭을 하도록 주문했다”며 “직구가 살면 변화구도 좋아진다. 게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 중간에 스피드와 힘있는 투수가 필요하다”며 이민우의 역할을 기대했다. 불펜에서 힘을 보태게 된 이민우는 상승세를 이어 앞선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이민우는 “팀 승리 기여도를 찾아보니까 내가 골짜였다. 3패만 하고 있다”며 “선발할 때와 달리 볼 배합도 다르게 가고, 힘 배분도 다르게 해야 한다. 선발로 나갈 때 보다 더 긴장되는 것도 있다. 앞으로 돌아올 투수들도 있고, 오디션은 계속된다(웃음). 경쟁력 있는 투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세먼지 갇히니 꽃가루 공습

김세현 “꽃 좀 다 밀어주세요”

취소 경기 최다 KIA

김기태 “어차피 끝나는 날 같아”

덕아웃 T 특특

▲잘하면 인터뷰할게요 = 마음 같지 않은 봄을 보내고 있는 이명기다. 지난 시즌 1위 팀의 1번 타자로 활약했던 이명기지만 올 시즌에는 빈 손으로 돌아가는 날이 많다. 타율이 2할 초반대에 머물면서 선발 라인업에서 이름이 빠진 날도 있었다. 이명기는 “몸이 자주 앞으로 쏠린다. 타이밍이 늦으니까 타격 포인트를 앞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잘 안됐다. 너무 오래 안 되고 있다. 중심을 뒤에다 놓고 치는 연습을 많이 했다”며 최근 부진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한 뒤 “나중에 잘하면 인터뷰(길게)하겠다”고 웃었다. ▲꽃 좀 다 밀어주세요 = 비와 미세먼지에 이어 꽃가루까지 삼중고에 빠진 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뒤, 15일에는 미세 먼지 경보가 내려지면서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그리고 24일 한화전도 비로 순연됐다. 25일에는 날이 개면서 화창한 봄 날씨 속에서 경기가 진행됐지만 선수들을 괴롭힌 또 다른 것이 있었다. 바로 바람을 타고 훑날린 꽃가루였다.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자 김세현은 “너무 심하다. 꽃 좀 다 밀어주세요”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어차피 끝나는 날은 똑같은가 = 홈 3경기, 원정 1경기를 비와 미세먼지로 치르지 못한 KIA. 25일까지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24경기를 소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후반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김기태 감독은 “앞으로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오고, 폭염도 올 것이다. 경기가 많이 밀려있지만 어차피(시즌이) 끝나는 날은 똑같다”며 날씨와 상관없이 시즌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연아 아이스쇼 은반 위에 선다

영화 ‘팬텀스레드’ OST

‘피겨퀸’ 김연아(28·은퇴)가 4년 만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은반 위에 선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25일 아이스쇼에 특별출연하는 김연아의 새 갈라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올댓스포츠는 “김연아는 영화 팬텀스레드 오리지널사운드트랙 중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로 구성된 ‘하우스 오브 우드코크(House of Woodcock)’에 맞춰 연기를 펼친다”며 “김연아의 현역시절 내내 안무를 맡았던 데이비드 월슨이 프로그램을 맡았다”고 전했다. 하우스 오브 우드코크는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기타리스트이자 멀티 아티스트로 불린 조니 그린우드와 작곡한 곡이다. 로맨틱하면서도 슬픈 선율이 인상적이다. 김연아는 “영화를 보며 음악이 좋고 생각해왔다”며 “갈라 준비를 하며 안무가인 데이비드 월슨에게 몇 곡을 추천한 뒤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무가 월슨은 “김연아가 고른 음악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소개한 뒤 “모든 이들이 은반 위의 김연아를 그리워했는데, 4년 만에 함께 공연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연아가 갈라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건 현역선수 은퇴 아이스쇼로 열린 2014년 무대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김연아는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에 맞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김연아의 무대는 다음 달 20일부터 22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올댓스케이프 2018’ 무대를 통해 공개된다. 아이스쇼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댄스 금메달리스트인 테사버추-스캇 모이어 조를 비롯해 2018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케이틀린 오스몬드, 캐나다 간판이자 최근 은퇴를 선언한 패트릭 쟈 등이 출연한다. /연합뉴스

‘강남 스타일’ 맞춰

최경주·위창수 티샷

26일 PGA 취리히 클래식

최경주(48)와 위창수(46)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에 맞춰 1번 티 그라운드에 올라선다. 26일부터 미국 루이지애나주 에번데일에서 열리는 취리히 클래식은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순위를 정하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특히 선수들이 입장할 때 미리 지정된 노래를 틀어 경기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 예정인데 최경주·위창수 조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택했다. 안병훈(27)과 재미교포 케빈 나(35)가 한 조를 이룬 팀의 배경 음악은 미국 가수 마스터 피(Master P)의 ‘메이 크 템 세이 어(Make'em Say Uhh)’다. 스티브 스트리커(51)와 제리 켈리(52·이상 미국) 등 50대 노장 조는 과거를 추억하는 ‘내가 잘 나갔을 때처럼’이라는 의미의 ‘애즈 굿 애즈 아이 원스 워즈(As Good As I Once Was)’라는 노래를 골랐다. 호주 출신 제이슨 데이와 라이언 러펠스는 호주를 뜻하는 ‘다운 언더(Down Under)’라는 노래와 함께 등장하기로 했다. 또 남아공 국적의 레티프 구센-타이론 밴 스코워겐은 ‘아프리카’라는 노래, 리셀 녹스-마틴 레어드(이상 스코틀랜드)는 ‘플라워 오브 스코틀랜드’라는 곡을 각각 택했다. D.A. 포인츠와 카일 톰프슨은 컷 통과 의지를 담아 ‘워킹 포 더 위크엔드’라는 노래와 함께 팬들 앞에 등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상승세 류현진 4연승 도전 28일 샌프란시스코전 선발

상승세를 탄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왼손 투수 류현진(31)이 28일 오전 11시 15분(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방문경기에서 4연승에 도전한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25일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주말 샌프란시스코와의 4연전에 등판할 선발 투수를 공개했다. 다저스 전담 방송인 스포츠넷 LA의 엘

레나 리조가 트위터에서 전한 내용을 보면, 류현진은 4연전의 첫 경기인 28일 마운드로 오른다. 29일 더블헤더 1차전의 선발은 미정이나 전날 빅리그 선발 데뷔전에서 5이닝 무실점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광속구 투수 워커 블러가 유력하다. 다저스는 이날 불리를 트리플 A 오글라 호마가 아닌 싱글 A 랜초쿠카롱가로 옮겼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가까운 랜초쿠카롱

가로 보냈다가 샌프란시스코 원정 때 동호했다는 속내로 워한다. 더블헤더 2차전엔 알렉스 우드, 30일엔 마에다 겐타가 차례로 나선다. 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 3경기 연속 탈삼진 8개 이상으로 3연승을 질주한 류현진은 까다로운 샌프란시스코 타선을 상대로 4월 전승을 노린다. 류현진은 속구의 제구를 정교하게 가다

들어 ‘코리아 몬스터’로 부활했다. 속구의 컨트롤이 잡히면서 컷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의 위력도 배가됐다. 류현진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 통산 12번 등판해 4승 6패, 평균자책점 3.38을 올렸다. AT&T 파크에선 4승 3패, 평균자책점 3.40을 거뒀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최대 라이벌인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는 올해 6번 격돌해 3승 3패로 호각세를 유지했다. 평균자책점 1.99로 3승을 올린 류현진이 여세를 몰아 샌프란시스코의 ‘천적’ 헨터 펜스(상대 타율 0.414), 버스터 포지(0.321, 1홈런)마저 잠재울지 주목된다. /연합뉴스